

52. 대군 미가엘이 일어서는 것과 마지막 때

2012. 12. 2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의 상반부를 살피겠습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서는 사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2:1~4]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 목사님, 이제 금년에 방송시간이 두 번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과 30일입니다. 아마도 12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려면 내년도로 시간을 넘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12장은 10장부터 계속되는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의 결론으로서 11장처럼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답: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북방왕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을 펼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으로 번민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소문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입니다. 북방왕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저지를 일을 다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호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승리로 이 죄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절에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 그런데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난입니까? 전에 7장을 공부할 때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 성도들이 환난을 받은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또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까?

답: 세상에 있는 환난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때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없지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환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의 환난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직면하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지요.

[렘30:5~7]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 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이뇨 7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뉘을 얻으리로다.

예, 여기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창세기 32장 24~32에 기록된 압복강 가에서 고뇌의 밤을 보낸 야곱의 행적에서 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과 약속했지요. 허락 없이는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요. 앞에는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기 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유곡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12:1의 대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경우인데요, 세상의 동맹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중보를 끝냈습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앞뒤가 다 캄캄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세상에는 큰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계시록에 일곱 대접의 환상이 바로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성도나 세상이 함께 겪는 환난입니다. 그 입장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보증하는 말씀이 있지요. 아마도 그때 성도들은 앞에 닥친 환난이 너무 커서 이런 보증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포에 사로잡히는지도 모르겠네요.

4. 그렇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 말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힘들겠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2절에 있는데, 어떤 부활입니까?

답: 예,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기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그 기간이 끝나면 구원사업이 종결됩니다. 그때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22:11)는 선언이 있습니다.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계시록 몫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첫째 부활과 그 다음 1000년 후에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지요.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부활합니다.(계20:4~6)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9) 그런데 단12:2의 부활은 좀 특이합니다. 부활하는데 그중에 영광을 받을 사람과 수욕을 당할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한꺼번에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또 상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끌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둘째 부활을 포함한 계시라면 티끌가운데 자는 자들이 다 깰다고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부활합니다. 그중에 영생 얻을 사람과 무궁한 수욕을 당할 사람이 함께 있다고 했으니 특이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부활이라고 부릅니다.

5. 예, 특별부활도 있네요. 그것은 어떤 성질의 부활입니까?

답: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함께 부활하는데요, 계시록 1:7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마26:64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를 심문한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심문관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재림을 보려면 부활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무리들이 무궁한 수욕에 들어갈 부활할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단12:2은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정당한 제자리가 있습니다.

6. 그 악인들은 무궁한 수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또 죽습니까?

답: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영광의 빛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살후1:7~9)라고 또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2:8)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북방왕으로 표상된 그 세력도 멸절하게 됩니다.

7. 그러니까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군요.

답: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 세상에 살아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분별력 있는 자들, 또는 잘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르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혜 있는 자들이 한 일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찬미에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비취리라. 라는 가사의 근원이 아마도 이 말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저도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무리 중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애청자들 중에도 이 무리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 이제 다니엘 12:4절 말씀을 설명하셔야 하겠는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합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까?

답: 다니엘은 계시를 보면서 자기 시대에 일어날 일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금년 마지막 시간에 나눌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말하고 지금은 그 마지막 때가 1798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니엘서의 봉합이 풀리게 되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지식이 더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지식은 성경말씀의 지식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식이 더해져야 할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에 지식이 팽창할 것도 함께 예언한 것입니다. 과연 세상은 그렇지요. 이미 다 구시대의 유물들이 되었지만 한 그런 발달 때문에 오늘날 과학의 황금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소위 오늘날 말하는 문명의 이기들의 대부분이 1798년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정말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적중하였습니다. 그중에 속도에 대한 것을 빼 수 없지요. 과학자 뉴턴(1642-1727)이 다니엘 계시록 해석 책을 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요, 그는 단12:4을 풀이하면서 장차 사람이 지상을 50마일로 달릴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보다 한 50년 늦게 태어난 프랑스인 볼테르(1694-1778)는 뉴턴의 이런 말을 듣고 “성경은 사람을 참 미치게 하는 책이다. 그렇지 않고야 뉴턴 같은 과학자가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만일 지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 길 가에 풀을 뜯는 새끼 뱀 소가 낙태를 할 것이고, 주위에서는 어지러워 넘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살려내어 LA 고속도로 옆에 세워둔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성경 예언은 너무 자세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는 것 같아요. 잘 맞지도 않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나 정감록 같은 것은 사람들이 해석해놓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참 이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지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관계는 시간을 다투어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의 지식이 보편화될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9. 말씀의 지식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답: 우리가 2300주야에 대하여 공부할 때에 성소정결 사업이 왜 230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세상에 읽고 쓰는 것이 서민들에게도 보편화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에 진리가 회복될 것도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또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미리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는 것과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빈번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지식이 더할 것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다니엘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턴의 다니

엘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 결코 밝게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예언을 그대로 믿고 시속 50마일 속도로 사람들이 지상을 달릴 때가 올 것이라고 풀이한 뉴턴의 혜안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없이 지혜롭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 예, 확실합니다. 결국 뉴턴이 옳았고, 볼테르가 들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볼테르는 그런 성경이 한 100년 후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던데, 지금 출판되어 매년 팔리는 성경 부수를 보면 정말 볼테르가 미치겠습니다.(그렇겠지요.) 아무튼 성경의 예언은 참으로 정확하네요.

답: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딤후 1:18,19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정로에 서서 하늘까지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4절로 끝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5절부터는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서 선지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니엘이 해석되는 때가 올 때에도 마지막 때가 확실히 언제부터인지를 알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5~7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한 번 말씀을 읽지요.

[단12:5~7]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하라고 하셨지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즉 교통이 발달할 것이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밝혀주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서에 여러 번 마지막 때를 뜻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때 끝이라든지, 여러 날 후라든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시를 끝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특별 장면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6~7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분이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한 분은 강 저편 언덕에 섰고, 한 분은 강물 위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 분이 묻고 강물 위에 있는 분이 대답합니다. 언덕에 서 있는 분은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 위에 있는 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언적 표상으로 물은 여러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니 아닙니까.(계17:15)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표상되어 나타납니다. 시104:4절과 겔28:2을 읽어봅시다.

[시104:3]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겔28: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 되었을 때에는 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 미가엘로 일어나시는 그분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니엘서가 바르게 해석되어질 그 때가 언제일지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표상적이지만 그 때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천사의 이름이 둘 만 나오지 않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가브리엘을 도우는 역할로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도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서로 대화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서로 도와서 하는 모습이지요. 여기서 미가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물 위에 서 계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계시록 10장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때와 관련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의 장면입니다. 읽어봅시다.

[계10:1~7]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우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4 일곱우뢰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여기에는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분인데, 이것은 계1:14~16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지요. 계4장에 있습니다. 이분은 한 발로는 땅을 밟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았습니다. 온 세계를 다 주장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다니엘 12장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이 두 장면은 비슷하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다니엘은 봉함한 책, 계시록은 펴 놓인 책, 다니엘은 강물 위, 계시록은 땅과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장면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펴 놓일 것에 대한 계시이지요. 그것이 펴질 때에 온 세상에 창조주 경배에 대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함한 사실이 펴질 때를 말씀하시는 분과 펴 놓인 책을 들고 있는 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봉함된 다니엘서가 열릴 때를 가장 합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난 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된 말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지요.

11. 이제 정말 금년은 한 번만 남았군요. 지금까지 나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언하셨고,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연구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영생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알 것이고 특히 다니엘서는 연구하면 깨달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예언의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답: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함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바울은 예언의 지도를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로를 따라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 다니엘서 강론을 들으시고 진실로 예언을 따라 때에 합당한 믿음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으로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총명을 주셔서 이 예언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예언의 지도를 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르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